



“교회 창립 36주년 축하합니다!”

1982년 10월 10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표어 아래 창립예배를 드린 후 36년 만에 전 세계 1만 1천여 지·협력교회를 둔 초대형 글로벌 교회로 성장시켜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2000년 이후에는 미국, 이스라엘, 인도 등 해외 14개국에서 성회를 개최하여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으며, 2018년 현재 170여 개국을 커버하는 GCN방송과 61개 언어로 발간된 이재록 목사의 신앙서적, WCDN과 MIS 등을 통해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창대하게 펼쳐가고 있다.



1 영혼을 시원케 하는 오중복음

2 불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 성장하다

3 세계 곳곳에 폭발적인 권능으로

4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진정한 사랑

“...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1~11)

사랑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우리를 행복하고 가슴 설레게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며, 사는 날 동안 변함없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다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며 결국은 썩어지고 변질되는 사랑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기쁨과 소망과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변함이 없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직 ‘영적인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며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으며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무한합니다.

죄인 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참혹한 형벌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까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지요. 이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고, 천국을 소망한다 말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1. 용서와 긍휼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마음 중심에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한이 있어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지요.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고 묻지요.

여인은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인을 “율

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 명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 살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아무 말 없이 몸을 숙여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 쓰셨습니까. 그리고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과연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이라고 쓰셨을까요?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의 죄목이었습니까.

처음에는 미움, 혐기, 욕심, 도적질, 간음, 교만 등 일반적인 죄목들을 기록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 죄목들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굽혀 땅에 쓰실 때는 사람들의 낮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곳에 둘러선 사람들이 범 죄한 정황을 ‘언제, 어디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쓰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적히는 것을 보면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닌 이상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한 명, 한 명 돌을 내려 놓고 자리를 뜬다. 자신

의 죄를 보면서 그 여인을 돌로 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모두가 떠나고 오직 예수님과 간음한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지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

셨다 해도 계속 죄 가운데 살면 여인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간절히 당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물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신다 해서 모두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되어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을 발하다가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아시고, 각 사람의 중심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다고 ‘이는 회개할 것이니 긍휼히 여기고, 저는 구원의 기회를 쥐도 회개하지 못할 테니까 그냥 포기하자’ 하지 않으셨지요. 아니면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이렇게 희생해야 하나’ 고민하지도 않으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선으로 대해주어도 고마운 줄 모르고 악을 행하면서도 뻔뻔한 사람을 보면 ‘저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 하고 외면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요.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죄인이었고, 사망의 형벌을 받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받을 수 있었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



그림 지민정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6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
|-------------------|----------------------------|
| 주일 대예배 | 1부 10:00 AM 2부 11:30 AM |
| 주일 저녁예배 | 3:00 PM |
|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 9:00 PM |
|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 11:00 PM |
| 금요일예배 | 11:00 PM |
| 수요일예배 | 7:00 PM |
|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 8:00 PM |
|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 9:00 PM |
|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 4:00 PM |
| 토요일예배 [아동부] | 3:00 PM |
| 다.월.철야 기도회 |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
| 새벽예배 |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성)

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상대를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면 이는 마치 자신의 죄가 기록된 것을 보면서도 상대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별한다' 하면서 상대를 쉽게 단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저 사람을 지켜보니 강박해서 진리를 알려줘도 잘 깨닫지 못한다' 하거나, '저 사람은 늘 잘하겠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나중에 보면 변화가 없는 사람이다' 규정하지요. 그런 사람에게 진액을 쏟아가며 보살필만한 가치가 적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분별이 아니라 긍휼 없는 마음으로 상대를 판단 정죄하고 포기해 버리는 것이지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을 대할 때라도 그를 한 영혼으로 본다면 긍휼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2.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상대에게 큰 은혜를 입었거나 상대의 사랑을 확인했을 때는 누구나 뜨거운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좋은 때뿐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변함이 없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변함이 없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로 인해 어떤 고난이나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변개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연단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심한 매를 맞고 피 흘리며 감옥에 갇혔을 때나 험한 바다에서 하루 낮과 밤을 표류할 때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했는데 왜 매를 맞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나. 왜 나를 이렇게 바다에 빠지게 하시나' 하는 서운한 마음이 티끌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히 나 같은 죄인이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격스러워 했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늘 편안하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 8~9절에 보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저 역시 이렇게 죽는 것처럼 낮아지는 시간도 있었고 너무나 마음 아픈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만 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저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낮아진다 해도,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을 맞는다 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뿐이지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마음이 뜨거우면 하나님께 생명이 드릴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평생 드리고 드렸는데 또다시 전부를 드려야 한다면, 과연 처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물질도, 충성도, 건강도 또다시 드려야 한다면, 그래도 행복하게 드릴 수 있을까요? 진정 사랑한다면, 그렇게 드렸는데도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낮은 자리에 처한다 해도 서운함이나 오해가 없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이루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3. 마음을 헤아려 행하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기준에 맞춰서 사랑을 줍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받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입장이 되고 상대의 마음이 되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가 주지 않는다 해도 서운해하거나 오해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상대의 마음을 얻고자 할 때에는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 세밀하게 살핍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진정한 사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것이었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명이라 해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루하루를 편히 지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깊이 헤아리셨기 때문에 쉬시지 못하고 드시지 못한다 해도 한 영혼이라도 더 치료하고 가르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사역하셨지요.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신 것이 아닙

니다. 이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고백이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안에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모든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나이다. 애통하지 마시고 눈물을 거두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장성한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그 모습과 열매가 달라집니다. 일을 이루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는 과정과 결과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기 위해 진액을 다 쏟게 되지요.

영혼들을 맡아 심방한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행한다면 열심히 찾아가기만 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 그 영혼이 잘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상대의 영혼이 잘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지요. 한 번을 만나도 상대에게 은혜를 입힐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쌓아서 만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도 영혼을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뜨겁게 사모하게 되지요.

또 진리를 가르친다 해도 내 마음대로 말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반발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여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를 받으며 자신을 낮추는 마음으로 대화를 함으로 상대가 마음을 열고 진리를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기 원한다면 성령의 음성 밝히 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선과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진정한 사랑을 상고하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용서와 긍휼이 끊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으며, 상대의 깊은 마음까지 헤아리는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림북
 믿음의 깊이를
 더해주는 생명의 말씀
 문서 선교

전 세계에 이재록 목사의 신앙서적을 출판해 보급하고 있는 도서출판 우림북은 현재 112권의 신앙서적과 61개 언어로 번역한 총 500종의 다국어 책자, 58개 언어로 530종의 전자책을 발간하여 전 세계의 수많은 독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운 새 예루살렘 성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요한계시록 21:2~22:5)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공간이니 얼마나 거룩하며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새 예루살렘 성 중앙에 있으며, 종과 같이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그 성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브리서 12:14)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태복음 5:8~9)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

새 예루살렘 성 중앙에 있는 보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대화하고 연회에 참석하며 천국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장차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때에 임시로 임재하시는 보좌이며, 하나님의 근본 보좌는 다른 공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무지개와 이십사 장로의 보좌가 둘러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일곱 영과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넓게 펼쳐 있어 보좌를 두른 온갖 빛이 반사 되니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시중들며, 호위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계 4:3~6).

또한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 강은 흐르는 듯, 흐르지 않는 듯 잔잔하게 흐르고 그 위에 찬란한 빛이 눈부실 정도로 반짝거리며 새 예루살렘 성을 지나 천국의 전체를 두루 돌아 다시 하나님의 보좌로 흘러 들어갑니다. 생명수 강의 물을 마시면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달콤한 맛이 돌며 몸 전체가 더욱 충만해집니다. 강에 직접 입을 대고 마시기도 하고 예쁜 옥잔이나 황금잔에 담아 마시기도 하지요. 강가의 벤치에 앉아 있으면 천사들이 떠다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선물, 새 예루살렘 성 안의 황홀경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오색찬란한 보석과 황금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끝없이 펼쳐 있습니다. 성의 중앙에는 생명수 강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보좌와 주님의 보좌가 있고(계 22:1) 그 주변에는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 사도 바울 등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선진들과 주님을 지극히 사랑한 막달라 마리아와 동정녀 마리아의 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마다 특색 있고 웅장하며 화려한 성에서 나오는 다양한 빛과 하

나님의 영광이 어우러져 마치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요. 새 예루살렘 성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집에 들어가면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랑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처럼 집의 외관은 물론 내부까지도 집 주인의 마음에 꼭 맞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천국집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고 받들며 품어 주기 때문에 매우 포근하고 안락하여 행복과 기쁨이 넘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곳이므로 주인의 취향에 맞추어 특별히 아름답고 웅장하게 건축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총감독이 되어 건축하신 집이니 얼마나 경이롭고 찬란하겠습니까.

정금과 각색 보석으로 꾸며진 정육면체 모양의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서는 질서 가운데 만물을 다스리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여 끝까지 반듯하게 이름을 나타내시려고 새 예루살렘 성을 네모반듯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척량하니 일만 이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했지요. 우리나라 단위로 환산하면 6천 리, 서양식으로 환산하면 약 2,400킬로미터(km)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새 예루살렘 성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열두 진주문이 있으며 열두 주춧돌(기초석)이 세워져 있습니다(계 21:12~14, 19~21). 이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살든지 모든 사람에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곽은 온통 벽옥으로 이뤄져 있으며(계 21:18),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 가지 무늬와 모양을 내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푸른빛이 감도는 보석으로 마치 맑은 물속을 환히 들여다보는 것과 같지요. 성곽은 맑고 투명한데도 밖에서는 성 안이 보이지 않고, 성 안에서는 밖이 환히 보입니다. 성곽이 있는데도 없는 듯하고,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



어서 빛에 반사되면 무지갯빛처럼 아름답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히 변치 않는 정금과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길조차 정금으로 만들어졌으며, 생명수 강가에 펼쳐진 모래도 금이나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 예루살렘 성의 보석은 색채와 광채가 매우 다양해서 이중, 삼중으로 아름답게 빛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영광의 광택을 입히셨기에 그 빛과 아름다움이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지요.

믿음의 승리자만이 통과할 수 있는 큰 아치형의 열두 진주문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에는 동서남북에 각각 세 개씩 열두 개의 문이 있는데, 문마다 큰 천사가 지키고 있어 성의 위엄과 권세를 한눈에 느낄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한참을 올려다볼 정도로 큰 아치형으로 문 전체가 하나의 영롱한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계 21:21). 양쪽으로 열리는 이 문은 황금 보석 손잡이가 달려 있으나 굳이 손으로 열지 않아도 저절로 열립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갖가지 보석이 많은데 왜 진주로만 열두 문을 만드셨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섭리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건물이라도 문이 없으면 드나들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보석으로 만든 것입니다. 진주의 생성과정을 보면 어떤 보석보다 값지고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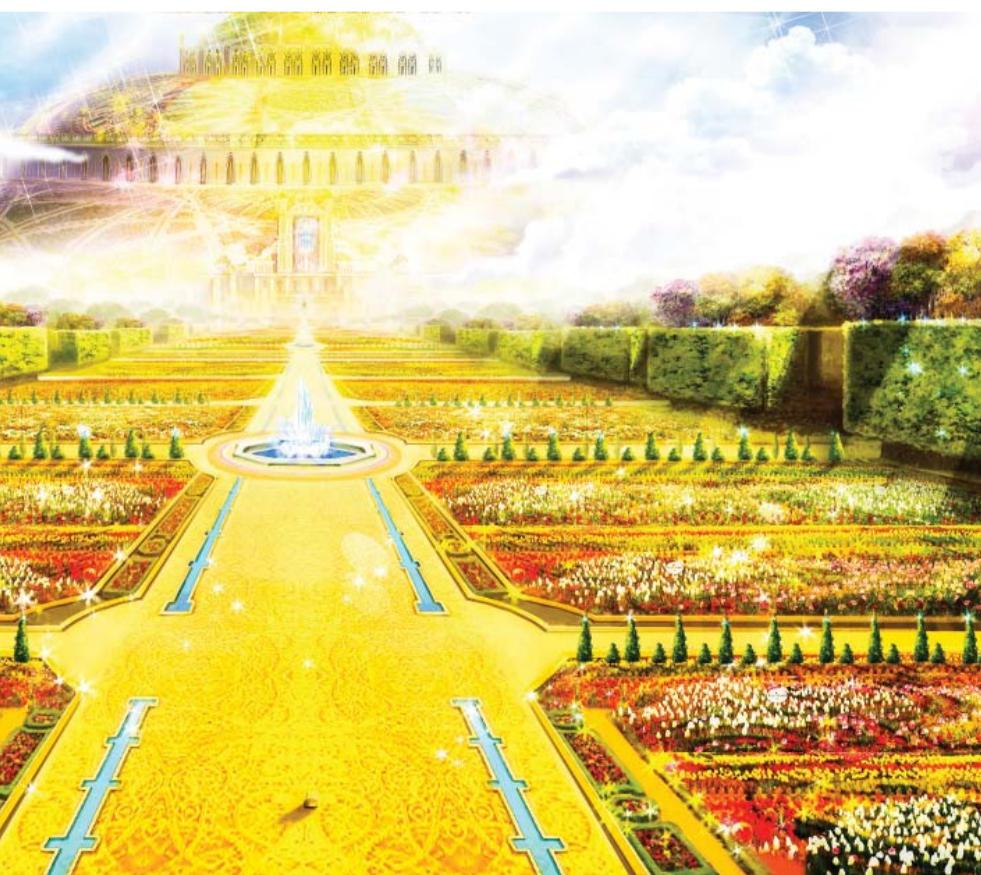
조개는 부드러운 살에 모래같이 단단한 이물질이 들어오면 마치 바늘이 살을 파고드는 것처럼 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 고통을 인내하는 가운데 온 힘을 다한 진액이 이물질을 감싸면서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지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인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슬픔을 인내함으로써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정금과 같은 믿음을 지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어야만 새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진주로 문을 만드신 것입니다(히 12:4 ; 계 2:10).

장차 우리가 진주문을 통과할 때에는 그곳에 들어오기까지 힘쓰고 애써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생명 다해 충성함은 물론,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한 믿음의 여정이 떠오르기 때문에 벅찬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진주문을 볼 때마다 친히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과 고마운 분들을 떠올리며 세세토록 감사하지요.

새 예루살렘 성의 맑은 유리 같은 정금길과 꽃길, 보석길

이처럼 믿음으로 승리한 지난날을 떠올리며 웅장한 아치형 진주문을 지나면 드디어 새 예루살렘 성의 위용과 장관이 눈앞에 드러납니다.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고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은은히 들려오며, 그윽한 꽃향기가 감도는 성 안으로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길 때에 그 황홀함과 행복은 형언할 길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끝없이 펼쳐진 새 예루살렘 성의 길입니다.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계 21:21), 걸을 때에는 매우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길에는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꽃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갑게 맞아 주지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길은 우리같이 맑고 투명한 마음을 이룬 사람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으며, 맑은 마음을 지닌 사람일수록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소망하며 침노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엔 영적 믿음을 의미하는 정금으로 길을 만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꽃길, 보석길 등 아름답게 펼쳐진 길이 많아서 각각의 길을 걸을 때마다 느끼고 행복이 다릅니다. 천국의 꽃길은 단지 길 양옆만 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꽃 자체로 이루어진 길로서 그 위를 걷습니다. 꽃길을 걸으면 마치 양탄자 위를 걷는 것같이 포근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꽃 위를 걸어도 꽃들이 짓눌리거나 상하지 않습니다. 꽃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위를 걸어가면 기뻐하며 향기를 마음껏 발산해 줍니다. 향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어 더 큰 즐거움과 충만함을 얻지요.

온갖 보석이 영롱한 빛을 내는 보석길은 그 자체만으로도 오색찬란한데, 영체가 밝을 때마다 한층 더 아름다운 빛을 냅니다. 보석들이 향기까지 내니 걷는 기쁨이 더하며 맑은 물 위를 걷는 듯 적당한 긴장감과 함께 상쾌하고 황홀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석길은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닦았을 뿐 아니라 인간 경작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큰 공헌을 한 사람의 집과 그 주변에 특별히 만들어 주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 두루마기를 빼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요한계시록 22:12~14)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열심히 마음의 할례를 해서 주님의 마음을 닦아가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마 7:21). 만일 주님을 영접한 후에도 여전히 비진리 가운데 행한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흐려져 결국 구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15절에 “그 두루마기를 빼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두루마기’란 마음과 행실을 뜻하며, ‘두루마기를 뺀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만큼 천국의 문들 곧 구원의 문을 지나 낙원, 1천층, 2천층, 3천층을 통과해야 가장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의 열두 진주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 비진리를 반복하는 사람들이나 거짓되게 신을 섬기도록 만드는 술객들, 육적 간음은 물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영적 간음을 하는 행음자들, 육적 살인은 물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실족케 하거나 형제를 미워하는 등 영적 살인을 하는 자들, 육적 우상 숭배 뿐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영적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 등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며 교회에 다닌다 해도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진정 천국을 소망한다면 교회에 나와 주님을 영접한 후,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으로 영을 낚으며 마음의 할례를 하여 죄를 버리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며, 성결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전해요!”

우리 교회는 지난 36년간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교회의 항상 기도제목 중 하나로 늘 기도하며 성취해 왔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까지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좇아 문서 선교와 방송 선교, 목회자 세미나와 권능의 손수건 집회(행 19:11~12), MIS(만민국제신학교), WCDN(세계기독교의사네트워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전해왔다. 그 가운데 WCDN과 GCN방송을 통해 풍성한 열매로 축복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WCDN

권능의 역사를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세계기독교의사네트워크



영적으로 피폐해진 마지막 때를 위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2004년 2월, 성경이 참임을 의학으로 입증하는 전 세계 기독교의사들의 모임인 WCDN(World Christian Doctors Network, 세계기독교의사네트워크)을 설립했다.



매년 초교과적으로 국제 콘퍼런스를 주최하여 약물이나 수술 같은 세상 의학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치료된 다양한 사례들을 의학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발표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 21개 지부를 두고 활발한 사역을 펼치고 있는 WCDN(회장 채윤석 박사)은 2018년 6월, 폴란드에서 17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제15회 국제기독교의학 콘퍼런스를 진행하였다. 2019년 6월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스라엘에서 제16회 콘퍼런스가 개최된다.

“기도로 치료의 역사를 베푸는 것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다니엘 푸엔테스 박사
(산부인과 전문의, WCDN 멕시코 지부장)

“WCDN을 통해 제가 본 이재록 박사님의 삶은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삶과 사역에 큰 감동을 받았지요.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치료의 역사를 베푸는 것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큰 일을 행하리라는 성경 말씀처럼, 이 박사님은 치료와 기적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계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다리아 워즈나르 박사
(정신과 전문의, WCDN 2018 폴란드 콘퍼런스 조직위원장)

“저는 허리디스크로 인해 허리 통증과 오른쪽 다리 저림으로 한 시간 이상 걸기가 어려웠습니다. 허리 아래쪽이 시큰거렸고 오른쪽 발가락 두 개에 감각이 없었지요.

작년 10월,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를 받은 뒤에는 허리에 통증과 다리 저림이 사라져 아무 문제없이 많은 시간을 걸을 수 있었고 잠도 잘 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이었고, 제가 그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의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위대한 사역입니다”



휴웨이엔 박사
(가정의학 전문의, 싱가포르)

“저는 의사로서 때론 한계를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질병의 원인을 안 뒤에는 기회가 될 때마다 WCDN에서 의학적으로 입증된 하나님의 치유 사례들을 환자들에게 전해 주곤 합니다.

이 목사님의 권능 사례는 피부병으로부터 신경계, 호흡계, 심장혈관계, 위장계, 중풍, 소경, 귀머거리, 자가면역질환, 암 말기 등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GCN(Global Christian Network, 세계기독교방송네트워크)은 다양한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 등을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보급함으로써 전 세계 무수한 영혼이 영적인 갈급함은 물론 각종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을 치료받는 등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하고 있다.



GCN방송

영혼을 만족케 하며
치료와 응답을 안겨주는
순수복음방송

GCN방송은 미국 갤럭시19(글로리스 타) 위성방송을 통해 북미지역을 커버하고, 코리아셋5, 엠스타5, 아시아셋5 위성을 사용해 중동,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에 24시간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또 40여 개 방송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중파, 위성, 케이블 등으로 세계 170여 개국에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이에 프랑스, 몰도바, 아르헨티나 등 가정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지·협력 교회들도 늘고 있다. 또한 매년 세계기독교방송인들의 축제인 NRB 총회 및 박람회에도 참가해 방송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다. GCN방송(www.gcntv.org)은 KT 올레TV 882번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초고속 인터넷이 되는 곳은 세계 어디서나 로쿠(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빅토리아 니키티나 사장
(TBN러시아)

“GCN방송은 전 세계 영혼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TBN러시아 시청자들은 이재록 목사님의 말씀과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넘치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GCN방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와 파잘 사장
(파키스탄 이삭TV)

“2011년에 파키스탄에서 처음 기독교 위성 TV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방영하는데 반응이 아주 좋고, 이 목사님의 기도로 심장병, 피부병 등 온갖 질병을 치료받아 간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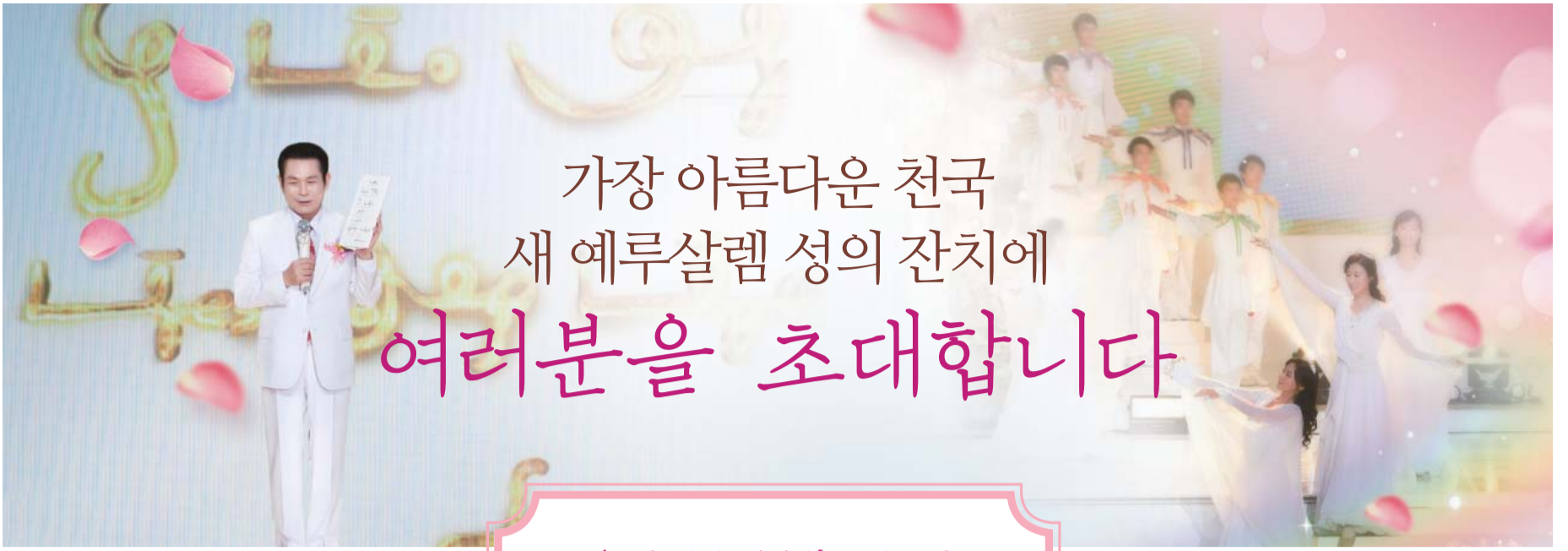
히메나 까브레라 성도
(콜롬비아)

“엔라쎌 방송을 통해 ‘십자가의 도’ 설교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깊이 있는 영적인 말씀에 감탄하며 큰 은혜를 받았지요. 설교 후 환자기도를 받은 뒤에는 교통사고로 생긴 경추 골절로 인한 통증이 사라지고 온전히 치료받았습니다”



밤파 셀라 오메르 성도
(콩고민주공화국)

“저는 에이즈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GCN방송을 통해 ‘만민하계수련회’ VOD를 시청하며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을 때 온몸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 뒤 에이즈로 인한 반점과 상처, 어지럼증이 사라져 지금은 건강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창립 32주년 공연



창립 32주년 공연



창립 33주년 공연



창립 35주년 공연

‘꽃길 따라 연회장’ 축하공연

- 1. 연회장으로의 초대**
천사들의 소개로 연회장으로 가는 공간의 문이 열린다.
- 2. 꽃길 따라**
설렘을 가득 안고 모여든 이들이 노래와 춤으로 초대받은 기쁨을 표현한다.
- 3. 행복이 가득한 곳**
경쾌한 찬양과 무용으로 행복한 연회장 안에서의 즐거움을 전한다.
- 4. 꽃길 연회장**
꽃길 연회장에서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행복을 찬양과 무용으로 노래한다.
- 5. 추억**
꽃길 연회장으로 초청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땅에서 함께한 행복했던 추억들을 무용으로 표현한다.
- 6. 소리 높여 영광을**
이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게 감사드리며 찬양과 무용으로 영광 돌린다.
- 7. 약속**
새 예루살렘을 향한 꿈을 수 없는 소망과 간절함을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 드린다.



창립 33주년 공연



창립 34주년 공연



창립 34주년 공연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광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이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73-4512, 010-3343-1537
- 군산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1)805-3898, 010-9140-4194
- 목포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사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청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곡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7-0017, 010-9271-701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청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9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421-0889,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352-8336